

## 조국 6일 하루 청문회... 추석 민심 가른다

민주-한국당 여론 부담에 가족증인 없는 청문회 전격 합의  
靑 “늦게나마 다행”... 조국 후보자 “의혹 소상히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관련기사 3·4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회동하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민주당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컸고, 한국당 역시 국회의 책무를 저버

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짜리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법사위원회 간 사들이 논의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중재 역할을 해왔던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증인도 부르지 않고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 반발, 청문회 불참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당의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6일 개최되는 것과 관련, “늦게나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망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



공작인-현대 조각과 공예 사이

공예를 통해 현대 조각의 흐름을 새롭게 모색해 보는 '공작인-현대 조각과 공예 사이' 전시가 5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에서 열린다. 갈과 한웃을 소재로 작업한 중국 출신 신수전 작가의 작품 '무기' >관련기사 16면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태풍 '링링' 북상... 광주·전남 6일 밤부터 영향권

이낙연 총리 “철저한 대비를”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정부가 대풍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링링'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440km 해상에서 시속 3km의 느린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 중이다.



앞으로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요일인 6일 오전 9시까지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약 370km 해상을 지나 토요일인 7일 오전 9시까지 전남 목포 서쪽 약 80km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다”며 “인명피해 예방·재산피해 최소화를 이루자”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제13호 태풍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회의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계기관, 지자체, 특히 주민들의 비상한 대처와 주의를 바란다”며 “링링은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줬던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닮았다고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오는 10월 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2019 GGGF 개막식'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공지능이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뛰어넘는 AI 국가 전략을 이미 완성했다. 그래서 10월이면 국민 여러분께 발표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AI와 빅데이터, 네트워크 분야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중소기업 청년 주거비 지원하지만 전남도, 지원 받을 청년 없어 고민

500명 모집에 141명 미만

전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도내 청년들에게 직접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정착 지원받을 청년이 없어 고민이다. 신청 자격을 농·임·어업, 숙박, 음식점, 보험업, 마을·사회적기업 등도 중소기업확인서만 발급되면 가능하도록 낮췄지만,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그만큼 없다는 의미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500명에게 최대 1년간 매달 10만원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를 모집했다. 지원 자격은 전남도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중소기업 근무 청년으로 했다.  
서울, 부산, 대전, 충남, 경남, 제주 등 청년 취업자의 주거지를 지원하는 타 시도가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 전남도는 직접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해 정책의 질을 높였다. 미혼 청년이나 무주택청년 등에게만 혜택을 준 것과 달리 전남도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도내 중소기업

에 근무하는 지역 청년들이 대거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 모집인원도 500명으로 했으나 이 같은 전남도의 예상은 빗나갔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 3월 4일부터 25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했으나 모집인원 500명 가운데 141명이 부족해 359명만이 신청서를 낸 것이다.  
지난 8월 전남도 인구 186만7094명 가운데 20대 20만3065명, 30대 19만7376명 등 청년층은 40만441명으로 21.45%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 28.03%, 충남 24.88%, 경남 24.33%는 물론 전북 22.7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다시 지난달 공고를 내고 각 시·군별로 141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전월세 주거지 현금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예상 외로 신청자가 부족했다”며 “시·군별 예산을 다 쓸 때까지 추가 모집을 한 뒤 그래도 신청자가 부족하면 대상자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공작인-현대 조각과 공예 사이

공예를 통해 현대 조각의 흐름을 새롭게 모색해 보는 '공작인-현대 조각과 공예 사이' 전시가 5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에서 열린다. 갈과 한웃을 소재로 작업한 중국 출신 신수전 작가의 작품 '무기' >관련기사 16면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조선대 의대 교수는 왜 그랬을까 >6면

---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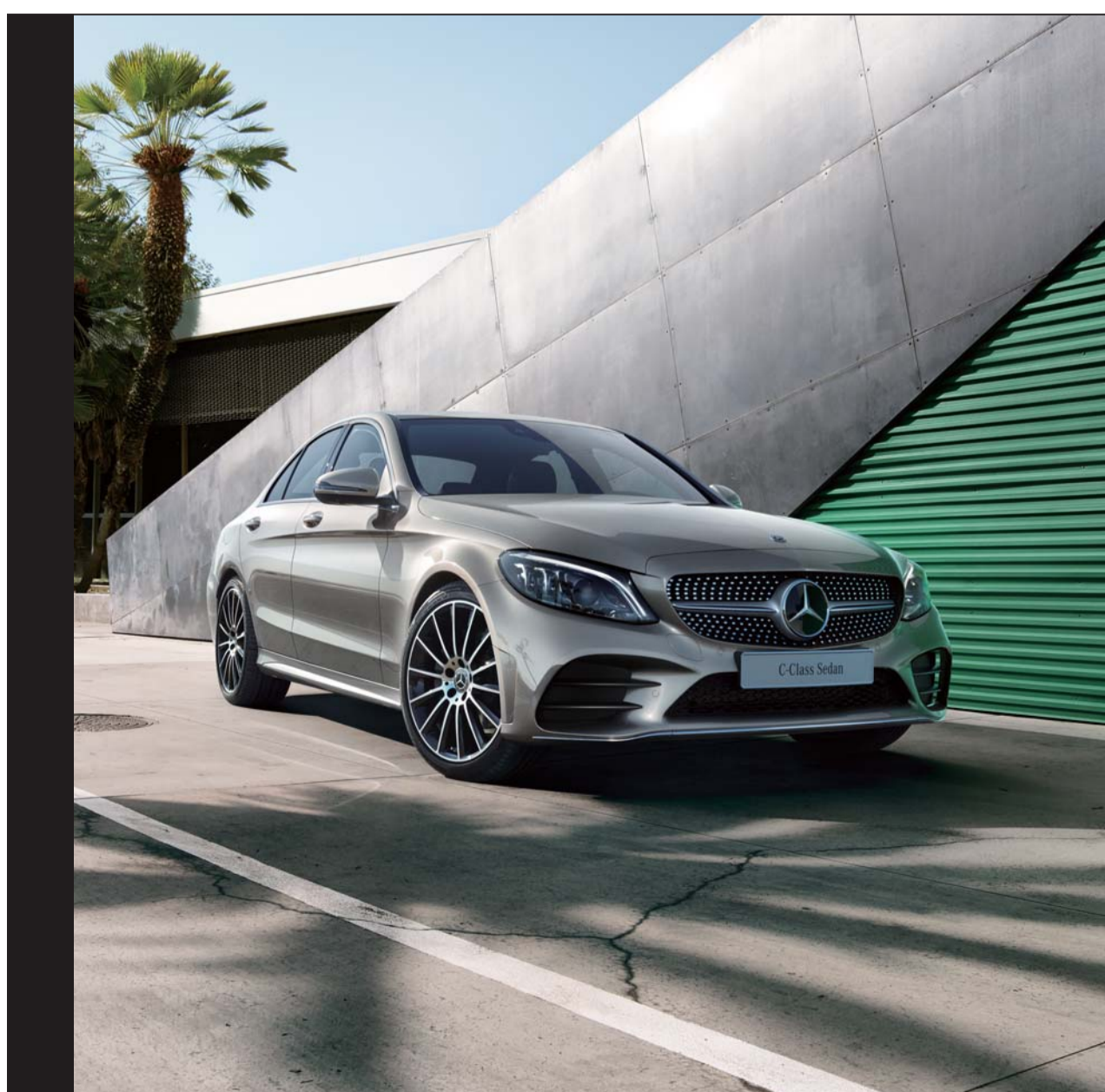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햇6 이정은 “내년 올림픽 금 도전” >2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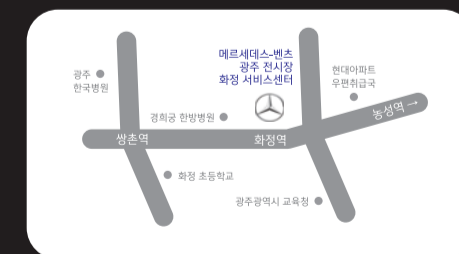
---

“뻔하지 않는 생각이 창조의 시작” >22면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